



선군혁명경도의 위대한 역사를 더듬어

세월과 더불어 이어진 선군령장의 뜨거운 사랑 한 바다가 초소에 잇든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주제 87(1998)년 3월 10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의 한 대련합부대편하 해안포중대를 시찰하시었다. 《로동신문》은 그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봉어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장령들과 군관들, 중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31년전 7월 24일 중대에 찾아오셨을 때 중대정지도원, 중대청년동맹 분초급단체위원장, 장이었던 진정규, 박병철동무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솜주치는 격정에 눈시울을 적시는 그들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고 사업과 생활, 가정살림살이와 건강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함께 부부하던 전우들의 안부도 물으시면서 흐르는 세월속에 몸은 비록 늙었어도 변함없는 병사의 자세로 군인교양에 이바지하고있는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보는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안포중대를 찾으시어 어제날의 중대군인인 두 전사를 만나신데 대한 내용은 결코 않다. 그러나 그날의 상봉에는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혁명경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뜻깊은 1960년대에 한 바다가초소에서 병사들과 하루를 보내신 때로부터 이어오신 사랑과 그리움의 긴 세월이 깃들여있었다.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물론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걸으신 전선길에 무수히 수놓아진 사랑의 이야기들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병사들의 환顔を 안으시고 육친의 정을 기울으신 자애로운 아버지의 한평생이 어려웠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에 소중히 간직된 영원한 태양의 영상이 비껴있다. 그 이야기는 세월의 먼 기슭에서부터 시작된다.

호랑하게 웃으시었다. 바다도 기쁨에 넘친듯 물결을 출렁이며 설레어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풍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천천히 바다가슴을 따라 시선을 옮기시었다. 《참 좋은 사회주의조국의 풍경입니다.》 갈매기들이 배머리를 스치며 춤추듯 날아왔다. 내륙에서는 트랙터들이 오고가고 공장들이 일떠서고... 이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잡아내고... 유정하신 어조로 이렇게 뇌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로동신문에 원썬놈들이 드러온 바닷길을 단 한기도 돌려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동무들이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해야 하며 고마운 사회주의조국에 대하여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시고는 병사의 손을 다정히 잡으시며 절절하게 말씀하시었다. 수령님께서 이 순간에도 조국의 명해를 지켜신 바다가초병들을 잊지 않고계십니다. 그러나 이곳도 결코 정양에서 멀리 떨어져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병사의 심장은 널뛰듯 하였다. 한없이 깊은 뜻이 담긴 귀중한 가르치심이 자자구구 가슴을 파고들었고 자기 손을 잡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손길이 온몸을 후덥게 달구었다. 그럴수록 눈길이 배에 실린 낚시대로 향하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다에 나가시는 기회에 곁잡힌 피로를 잠시나마 푸시기를 위하여 수행원들이 배전에 놓아드린 그 낚시대를 그이께서 어서 잡으시기를 바라면서 그는 잔물결이라도 일세라 삼가 노를 저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잡시의 낚시질도 병사들을 위해 하시었다. 그날 저녁에 낚시할 때마다 전사들의 식탁에 생선국을 놓아주시는 생각으로 미소를 짓곤 하시었다. 병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다속을 환히 들여다보시는듯 물고기를 속속 낚아내시는것을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수수하여도 명중낚시만 드리우는 낚시대는 불수룩 신기하게 안겨왔다.

하지만 그때 병사는 미처 느끼지 못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낚시대에 자주 시선을 던지는 자기의 호기심어린 눈빛을 조용히 읽고계시는 정양에서 멀리 떨어져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날 다들 잘 있었습니까?》 《위대한 장군님, 뵈고싶습니다!》 《정말 못 견디게 그리웠습니다!》 서론해 넘도록 애라게 기다려온 아버지장군님의 손을 잡은채 두 전사는 어린애처럼 흐느끼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목이 메여오르시는듯 아무 말씀없이 머리가 희끗해진 어제날 중대정치도원의 모색을 추원한 눈길로 더듬으시었다. 그사이 많이 늙었구만 하시는 장군님의 안색은 저으기 흐려있었다. 막을수 없는것이 세월의 흐름이고 소급할수 없는것이 인생이건만 오랜 나날 심중에 고스란히 간직해오신 전사들의 젊은 모습이 그리우시어 장군님께서는 어찌는 애뜻하시었다. 《나는 31년전에 만났던 해안포병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끝결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차장밖으로는 낮은 산이 흘러가고 차안에서는 낚시대가 반짝거리고있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그윽한 눈길로 파도가 칠색이는 해변가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날 노를 젓던 상등병동무가 낚시질을 하고싶어 나의 낚시대를 부러온 눈길로 바라본던 일이 눈에 선합니다. 그때 그에게 좋은 낚시대를 하나 마련해주지 못하고 온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엔 낚시도구를 가져다줍시다. 승용차는 세월의 먼 기슭이 불러 일으키는 가지가지 추억을 싣고 해안포중대로 달려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과 국가, 군대 전담사업을 하고시며 매일 방대한 업무에 감당해내시는 매우 바쁜속에서도 그처럼 수심년전에 있었던 일들과 그 과정의 한계 세부까지도 기억하시는데 어찌 절세영인의 출중함으로만 설명할수 있으랴. 그것은 다름아닌 애병애민의 열화같은 세계, 믿음과 정으로 끓는 친아버지의 심장에 서기 시작되는것이 아니랴.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한없는 정과 미더움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그때의 상등병동무가 이제 나이도 많았겠고 오늘도 여전히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초소에 서있으니 얼마나 장오하.》

《그때 다들 잘 있었습니까?》 《위대한 장군님, 뵈고싶습니다!》 《정말 못 견디게 그리웠습니다!》 서론해 넘도록 애라게 기다려온 아버지장군님의 손을 잡은채 두 전사는 어린애처럼 흐느끼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목이 메여오르시는듯 아무 말씀없이 머리가 희끗해진 어제날 중대정치도원의 모색을 추원한 눈길로 더듬으시었다. 그사이 많이 늙었구만 하시는 장군님의 안색은 저으기 흐려있었다. 막을수 없는것이 세월의 흐름이고 소급할수 없는것이 인생이건만 오랜 나날 심중에 고스란히 간직해오신 전사들의 젊은 모습이 그리우시어 장군님께서는 어찌는 애뜻하시었다. 《나는 31년전에 만났던 해안포병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끝결한 군인들이었습니다.》

47년전 여름날에

처절씩, 처절씩... 파도는 모래밭을 활으며 끊임없이 기슭을 오르내리고있었다. 누기를 머금은 해풍은 배사장을 거슬러 펄기나무숲을 조용히 흔들어주었다. 물결은 도래같이, 멀리 포구에서 배고동소리 유정하게 울려오는 바다가의 해안포전지... 주제 56(1967)년 7월 24일이었다. 조국방선의 이름없는 바다가초소에 려사에 길이 빛날 날이 도래하고있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선군혁명경도의 역사를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해안포중대를 찾아 불멸의 자욱을 새겨가게시었던것이다. 굵이같이 뻗어간 도래같이결을 따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중대로 향하게시던 그때 초소에는 여느날과 다름없는 시간이 흐르고있었다. 병살마당을 나서면 출렁이는 파도, 미역내 싱그럽고 끝마는 양식공 처녀들의 노래소리 들려오는 바다가는 그야말로 환복의 그림이었다. 전자의 반쪽이 포신아래 안겨드는 조국의 아름다움 바다풍경은 병사들로 하여금 저절로 붓을 들게 하였다. 하여 출렁이 끝난 후엔 중대군인들은 고기배들이 만진기를 날리며 들이치는 포구를 소묘하고도 하고 해안포병의 영애와 공지를 자작시에 담기도 하였다. 그들속엔 빨간 명장도 노란 줄이 하나 건너간 나라인 병사도 있었다. 중대에서는 그를 생포내이라고 불렀다. 고향이 생포내였다가 노도 잘 짓고 낚시질에도 능하였던 것이다. 《신포내기, 만약 중대의 폭배를 타고 낚시질을 한다면 한시간에 물고기를 얼마나 잡을수 있소?》 구대원들이 이렇게 물으면 그는 자신있게 대답하곤 하였다. 《두 버치는 허양 잡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줄거는 웃음이 터지곤 하였다. 중대에 그런 생활의 판만이 넘치던 시각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면에

한한 웃음을 담으시고 초소에 들어서시리라고 그때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군으로 굳건히 다져나가시는 또 한번의 천출명장,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중대는 감격과 환희로 불도가니마냥 뿜어내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씩씩하게 거수경례를 드리는 중대지휘관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었다. 《동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있는지 보고싶어합니다.》 참으로 꿈만 같은 일이었다. 아버지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뵈고싶던 일일천추의 소망을 풀게 된 해안포병들은 가슴을 세차게 들떠어있었다. 그가운데서도 신포내기병사의 기쁨은 비길데 없었다. 바다에 나가서야 칠색의 오색로 다져진 해안포전지의 위장상태를 보시기 위해 몸소 중대의 폭배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노를 짓는 남다른 영광을 지니었던것이다. 그의 마음은 훨훨 하늘을 날았다. 비록 자그마한 매생이였지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니 배가 커다란 보란처럼 여겨졌다. 그는 전우들이 교환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힘차게 노를 저어갔다. 중대지휘관과 함께 폭배에 오르시어 잔물결은 배머리에 허물없이 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파도에 기우뚱거리는 선체를 바로잡으며 안전하게 배를 모느라 애쓰는 젊은 병사를 미덥게 바라보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름이 무엇인가, 고향은 어디인가 살뜰히 물으시었다. 그때마다 병사는 장군님의 친근하고 소탈하신 인품을 끝까지 활달하게 대답하였다. 능숙하게 노를 짓는 병사가 대견하시어 장군님께서 노트는 법은 언제 배웠는다고 물으시었을 때에는 사실은 노트는 법을 배우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스투름없이 말씀드리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말에

환한 웃음을 담으시고 초소에 들어서시리라고 그때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혁명군으로 굳건히 다져나가시는 또 한번의 천출명장,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중대는 감격과 환희로 불도가니마냥 뿜어내지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씩씩하게 거수경례를 드리는 중대지휘관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었다. 《동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있는지 보고싶어합니다.》 참으로 꿈만 같은 일이었다. 아버지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뵈고싶던 일일천추의 소망을 풀게 된 해안포병들은 가슴을 세차게 들떠어있었다. 그가운데서도 신포내기병사의 기쁨은 비길데 없었다. 바다에 나가서야 칠색의 오색로 다져진 해안포전지의 위장상태를 보시기 위해 몸소 중대의 폭배에 오르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노를 짓는 남다른 영광을 지니었던것이다. 그의 마음은 훨훨 하늘을 날았다. 비록 자그마한 매생이였지만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니 배가 커다란 보란처럼 여겨졌다. 그는 전우들이 교환듯이 어깨를 으쓱하며 힘차게 노를 저어갔다. 중대지휘관과 함께 폭배에 오르시어 잔물결은 배머리에 허물없이 앉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파도에 기우뚱거리는 선체를 바로잡으며 안전하게 배를 모느라 애쓰는 젊은 병사를 미덥게 바라보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름이 무엇인가, 고향은 어디인가 살뜰히 물으시었다. 그때마다 병사는 장군님의 친근하고 소탈하신 인품을 끝까지 활달하게 대답하였다. 능숙하게 노를 짓는 병사가 대견하시어 장군님께서 노트는 법은 언제 배웠는다고 물으시었을 때에는 사실은 노트는 법을 배우느라 진땀을 흘렸다고 스투름없이 말씀드리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말에

31년이 지난 후에

세월은 류수와 같았다. 어제날 병사는 가는 해, 지는 달이 원망스러웠다. 그리움은 풀길 없는데 어느새 수십년이 흘러 버려진 흰머리가 내려왔다. 언제든 다시 보리라, 소름기 내배고 박막이 미끈거리는데 폭배에 허물없이 오르시던 아버지장군님, 총장은 가슴에 조국의 참뜻을 심어주시던 거룩하신 그 모습은 꿈결에도 떠올랐다. 중대의 향식창고에 들리시어 식량과 부식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도 어두컴컴한 저장고에도 들리시어 절친한 물고기들이 들어있는 독들의 뚜껑도 손수 차례차례 열어보신 다정한 그 사랑, 휘사장을 찾으시어는 설 설 풀는 국가마무정도 열어보시고 병사들과 함께 점심식탁에 마주앉으시어 준비해가지고오신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저가락까지 튀어주시던 자애로운 아버지! 이 동무들이 끓인 국을 들여오시오 라고 하시며 은 중대가 먹는 한가마속의 국을 같이 드시면서 하시던 말씀을 순간이라도 잊어본적 있었는가. 《구수하구만! 국맛이 썩 좋습니다.》 어느 날이면 그 정다우신 음성 또 들리고 인자하신 모습 다시 떠올라! 피뎀된 흥안의 시절은 멀리 갔어도 오는 세월도, 가는 세월도 소중한 추억은 지우지 못했고 간절히 그리움에 이끼를 던지 못하였다. 하나 그가 어찌 알았겠는가. 긴긴 30여년 그 세월을 아버지장군님께서 더 절절한 그리움속에 보내고 계시는줄을. 옛객은 부모를 간직하시리라는 자식의 심정에 감복하여 기러기가 바다를 날아오며 그 마음을 전하듯 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간에 바다가

《그때 다들 잘 있었습니까?》 《위대한 장군님, 뵈고싶습니다!》 《정말 못 견디게 그리웠습니다!》 서론해 넘도록 애라게 기다려온 아버지장군님의 손을 잡은채 두 전사는 어린애처럼 흐느끼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목이 메여오르시는듯 아무 말씀없이 머리가 희끗해진 어제날 중대정치도원의 모색을 추원한 눈길로 더듬으시었다. 그사이 많이 늙었구만 하시는 장군님의 안색은 저으기 흐려있었다. 막을수 없는것이 세월의 흐름이고 소급할수 없는것이 인생이건만 오랜 나날 심중에 고스란히 간직해오신 전사들의 젊은 모습이 그리우시어 장군님께서는 어찌는 애뜻하시었다. 《나는 31년전에 만났던 해안포병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끝결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다들 잘 있었습니까?》 《위대한 장군님, 뵈고싶습니다!》 《정말 못 견디게 그리웠습니다!》 서론해 넘도록 애라게 기다려온 아버지장군님의 손을 잡은채 두 전사는 어린애처럼 흐느끼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목이 메여오르시는듯 아무 말씀없이 머리가 희끗해진 어제날 중대정치도원의 모색을 추원한 눈길로 더듬으시었다. 그사이 많이 늙었구만 하시는 장군님의 안색은 저으기 흐려있었다. 막을수 없는것이 세월의 흐름이고 소급할수 없는것이 인생이건만 오랜 나날 심중에 고스란히 간직해오신 전사들의 젊은 모습이 그리우시어 장군님께서는 어찌는 애뜻하시었다. 《나는 31년전에 만났던 해안포병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끝결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때 다들 잘 있었습니까?》 《위대한 장군님, 뵈고싶습니다!》 《정말 못 견디게 그리웠습니다!》 서론해 넘도록 애라게 기다려온 아버지장군님의 손을 잡은채 두 전사는 어린애처럼 흐느끼었다. 아버지장군님께서 목이 메여오르시는듯 아무 말씀없이 머리가 희끗해진 어제날 중대정치도원의 모색을 추원한 눈길로 더듬으시었다. 그사이 많이 늙었구만 하시는 장군님의 안색은 저으기 흐려있었다. 막을수 없는것이 세월의 흐름이고 소급할수 없는것이 인생이건만 오랜 나날 심중에 고스란히 간직해오신 전사들의 젊은 모습이 그리우시어 장군님께서는 어찌는 애뜻하시었다. 《나는 31년전에 만났던 해안포병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끝결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김보현선생님의 묘에 화환 진정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보현선생님의 탄생 143돐에 즈음하여 19일 만경도에 있는 선생님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선생님의 묘에 놓여있었다. 김보현선생님의 묘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 있었다. 화환진정에는 양형섭동지, 강

석주동지와 리철만대각부총리, 당,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 시내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김보현선생님의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화환이 진정되었다. 이어 성, 중앙기관, 혁명학원, 평양시내 당, 정전기관, 농장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일가분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한 혁명투쟁의 길에 내세우시였으며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바치신 김보현선생님의 고결한 생애를 돌이켜보며 무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슬직하여 종다시며

어느해 6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외진 섬 초소를 찾으셨을 때였다. 병살에 들리시어 해병들의 생활을 구석구석까지 료해하시며 다신 한 은정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출입문결에 있는 세면도구결에서 걸음을 멈추시었다. 규률생활이 몸에 익 베인 해병들의 정신상태를 그대 로 보여주듯 매 카메라에 질서있

게 정돈되어있는 세면도구들... 그런데 수건결에는 땀수마찰을 했는지 세면수건들이 젖은 채로 걸려있었다. 그이께서는 그 수건들을 유심히 살펴보시었다. 순간 군부대 일군들은 장군님께 수건들을 보여드리지 못한 자책감으로 하여 얼굴

을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크나큰 감동에 휩싸였다. (아마 새 수건들을 걸어놓았더라면 그렇듯 기뻐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병사들의 생활을 료해하시실 때 기식과 걸치레가 없이 실상 그대로 보여드리시기를 가장 좋아하시는구나!...) 채희성

오성산아, 이야기 하라!

구름에 싸인 높은 평릉, 칼바람 아슬슬 그 험한 산악 하늘가에만 솟아있었다.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솟아있고 천만민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솟아있는 오성산! 그 이름 한평생 총대를 역세게 틀어쥐신 위대한 평장의 려사에 선군의 산악으로 빛을 뿌린다. 그 모습 강성부흥의 성새로 조국청사에 आरो새겨져있다. 우리 장군님 비오나 눈오나 오르고 낮에도 밤에도 넘으신 자욱 백전두덩이 려길에 천리, 만리를 이루고있다. 말하라, 오성산이여, 우리 장군님 지켜내리는 야전차를 몸소 미시며 칼벼랑길 뚫으시었던 16년전 8월의 그날을. 어찌하여 우리 장군님 그처럼 사생결단 전선길 걸으시었고 폭팜에 꿇기법을 알고이시며 비바람, 눈비를 헤치시었던가. 정령 너의 메부리는 총대우에 평화도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도 있다는 위대한 선군평장의 신념과 의지로 승업하고 거룩하다. 이렇한 벼랑길 한치한 치도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이 있어 나라를 지켜왔다고 하신 그 말씀 새겨주어 더욱 눈물겹다. 오성산이여, 너를 못 잊으리라. 어디서나 오르고 언제나 오르리라. 우리의 사회주의 고수하시고 만대의 행복 지켜내시였으며 인민이 발전잠을 자게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숨내인 산, 선군의 산악 오성산이여!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명일



#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농민의 영예를 떨치리

## 알곡증산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농사를 잘하여 농업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수확의 계절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논물을 메고 가을걷이하는 마지막영농공작까지 한가지도 소홀히 하지 말고 과학기술적으로 구태로 내몰아 올해 알곡고지점령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다.

얼마전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농업성 일꾼들, 농업과학원 실장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앞으로 예정되는 날씨와 현재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대하여 알고싶다.

농업성 부국장 김창길: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8월 중순과 하순에 우리 나라는 주로 남쪽저기압과 북서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을것으로 보고있다. 평균기온은 8월 하순에 전반적지방에서 18.6~24.3℃로서 평년보다 0.3~1.2℃ 높고 지난해에 비하여 평안북도, 북부내륙지방, 동해안지방에서 0.4~1.8℃ 높으며 그밖의 지방에서 0.5~1.2℃ 낮을것으로 예견된다. 이 기간의 강수량은 전반적지방에서 30~162mm로서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평년보다 12~27mm 많고 그밖의 지방에서 평년정도일것으로 보고있다. 그리고 지난

### 농업부문 일꾼들, 과학자들과 나눈 이야기

해에 비하여 함경남도에서 13mm정도 적고 그밖의 지방에서는 1~87mm 많을것으로 예견된다. 전반적지방에서 현재 논벼는 이삭이 패어 물안드는 시기에 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평지대대에서 늦게, 중간중간강릉은 물안드는 시기에 있다.

기자: 기상기후조건에 맞게 논벼비배관리를 기술적으로 구태로 하여 여름물을 높이고 천일질량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과학원 실장 함대선: 올해는 물이 부족하여 가을걷이 할 때까지의 논벼비배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을걷이 할 때에 따라 올해 논벼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것은 이때가 바로 논벼여물을 높이고 천일질량을 높일수 있는 시기이기때문이다.

올해 봄철에 이어 여름철에도 기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논벼생육이 앞당겨져 8월 상, 중순에 이삭패기와 물안들이기 시작되었다. 이런 조건에 맞게 여름물을 높이고 천일질량을 높일수 있도록 논벼비배관리를 잘 하는 데 중심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삭패는 시기 논벼의 생리특성에 맞게 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논벼의 생육기간에 물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는 감수분열기부터 이삭패는 시기까지

은 2~3일 또는 4~5일정도로 모를 길러 심는것이 좋다. 그리고 잡초는 기간과 자라는 기간이 짧은 품종들을 선택하여 작파하는 경우에는 8월 중순까지 심기를 끝내야 하며 8월말까지 늦어지는 경우에는 4~5일정도로 모를 길러 심어야 한다.

기자: 현재 강릉이 이삭들이여물어가는데 강릉이농사에서 어디에 힘을 넣어야 하는지 알고싶다.

농업과학원 실장 김양일: 이삭패는 시기 벼의 익색을 고려하여 영양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비배관리대책도 세워야 한다. 이삭패는 시기를 전후로 하여 익색이 떨어진 포전층에서 2% 노소액과 여러가지 미량원소들이 들어있는 아미노산비료와 나노알칼리,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합성강화제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노소비료를 일것비료로 주면 체내에 빨리 흡수되어 일의 물질생성을 높여준다.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합성강화제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노소비료를 일것비료로 주면 체내에 빨리 흡수되어 일의 물질생성을 높여준다.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합성강화제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노소비료를 일것비료로 주면 체내에 빨리 흡수되어 일의 물질생성을 높여준다. 다원소광물질비료, 나노합성강화제 등을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여야 한다.

은 2~3일 또는 4~5일정도로 모를 길러 심는것이 좋다. 그리고 잡초는 기간과 자라는 기간이 짧은 품종들을 선택하여 작파하는 경우에는 8월 중순까지 심기를 끝내야 하며 8월말까지 늦어지는 경우에는 4~5일정도로 모를 길러 심어야 한다.

기자: 현재 강릉이 이삭들이여물어가는데 강릉이농사에서 어디에 힘을 넣어야 하는지 알고싶다.

농업과학원 실장 마봉수: 원 그루강냉이포전층에서 습해와 비배관리를 막기 위한 대책을 계속 세우는것과 함께 남해안그루로 심는 강냉이의 가을걷이와 나노알칼리를 잘하여야 한다.

올중강냉이는 일과 오사리가 마르고 낱알의 일부는 검은색의 분리가 형성되며 낱알에 윤기가 들고 손으로 눌러도 자리가 나지 않을 때 가을걷이를 해야 한다. 강냉이는 이삭에 물기가 많으면 낱알탈리를 하는 과정에 손실이 많아지게 되므로 오사리를 빨리 밟고 잘 말려 털어야 한다. 털어진 강냉이는 물기함량이 17%이하로 되도록 말려 보관하여야 한다.

기자: 가을걷이와 낱알탈리준비도 서둘러야 할 중요한 영농사업이라고 본다.

농업성 부국장 김경록: 그렇다. 가을걷이와 낱알탈리준비에서는 무엇보다도 농기계와 농기

구들을 잘 갖추어놓는것이 중요하다. 낱알탈리를 와다닥 끝내고 알곡손실을 극력 줄일수 있도록 이농기탈곡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올해 황해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평지대대에서 벼알이 쉽게 떨어지는 품종은 많은 면적에 심은 조건에서 이농기탈곡기로 포전에서 낱알탈리를 하면 벼단이통에 의한 손실을 훨씬 줄일수 있다. 모든 작업, 분조들에서는 낫, 솥, 삼태기 등 필요한 중소농기구들의 수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모지라는 것을 보장하고 불비한것은 수리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장들에서는 운반속도이자 가을걷이속도를 높일수 있도록 운반수단의 점검은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는것과 함께 포전길도 번듯하게 닦아놓아야 한다.

기자: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다.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마지막영농공작까지 한가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간지럽게 해 나갈 때 정보당 수확고가 높아져 나라밖으로 가득 채워질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성 부국장 김창길: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마지막영농공작까지 적기에 철적으로 끝낼수 있게 사회주의 농촌경제발표 5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알곡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농민의 영예를 떨쳐야 한다.

본사기자 황연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공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야군 봉흥협동농장에서 일꾼들은 8월에 들어서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점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마지막 논벼비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것만 같았다. 이 과정에 어떤 사실에 주목을 둘리까 되었다.

지난해 이 포전층에는 특산물과 아미노산비료와 노소액이 많이 들어있었다. 그렇기 하나 다른 포전에 비하여 이삭이 고르며 낫아 이삭당 알수가 많고 여름에 높았으며 천일질량이 높았다. 이 사실을 놓고 일꾼들은 특산물에 대하여 분석을 심화시켰다. 특산물에는 미량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특히 살균력이 강한 리튬성분과 티오균도 들어있었다. 결과장마철에 바람이 세게 불고 해비침들이 떨어지기도 벼가 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벼가 실해지고 익색이 진해져서 이삭이 축진 되었었다. 그리고 벼뿌리의 황색도 높아지게 되었다.

신심을 가진 일꾼들은 올해 모든 포전들에 이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우선 생육후반기 영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당 물 500L

에 특산물 15~20L, 아미노산비료 2~2.5L, 노소액 10~12kg을 혼합하여 시비하도록 하였다. 만일 이때에 흰잎마름병이나 벼열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노소액은 치지 않고 특산물과 아미노산비료와 노소액만 앞에 정량한 량만큼 섞어 분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해비침이 낫을 때에는 정보당 물 500L에 특산물과 아미노산비료 3~5kg을 풀고 여기에 노소액이나 아미노산비료와 노소액을 섞어 시비하도록 하였다.

또한 맹해현상이 나타날 때에는 정보당 물 500L에 특산물 1kg을 풀고 여기에 아미노산비료와 노소액을 섞어 분무하게 하였다.

이때 이삭패기전에 1회, 이삭패 후 10일 지나서 1~2회정도 한주일간으로 일것비료로 주도록 하였다.

이 비료를 시비할 때 기후조건을 고려하였다. 벼에서 이삭이 낫는 정도에 따라 피하여 오전과 후에 시비하도록 하였다. 비가 내린 후에도 벼들이 미른 다음에 시비하게 하였다.

결국 농사조건이 불리한 속에서도 벼의 생육상태가 좋아지게 되었다.

이 농장의 현실은 일꾼들이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안고 마지막영농공작을 철저히 실천에 맞게 과학적으로 짜고들 때 좋은 결과를 맺게 할수 있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금야군 봉흥협동농장에서 일꾼들은 8월에 들어서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점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마지막 논벼비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것만 같았다. 이 과정에 어떤 사실에 주목을 둘리까 되었다.

지난해 이 포전층에는 특산물과 아미노산비료와 노소액이 많이 들어있었다. 그렇기 하나 다른 포전에 비하여 이삭이 고르며 낫아 이삭당 알수가 많고 여름에 높았으며 천일질량이 높았다. 이 사실을 놓고 일꾼들은 특산물에 대하여 분석을 심화시켰다. 특산물에는 미량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특히 살균력이 강한 리튬성분과 티오균도 들어있었다. 결과장마철에 바람이 세게 불고 해비침들이 떨어지기도 벼가 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벼가 실해지고 익색이 진해져서 이삭이 축진 되었었다. 그리고 벼뿌리의 황색도 높아지게 되었다.

신심을 가진 일꾼들은 올해 모든 포전들에 이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우선 생육후반기 영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당 물 500L

### 백암군 상담농장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을 중시하고 감자 농사를 과학화하는데 감자 생산을 빨리 늘리는 기본 담보가 있습니다.》

감자수확을 높이는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좋은 영농방법이다.

여기로부터 백암군 상담농장의 일꾼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감자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서 꽃망울따주기를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영농작업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우선 일꾼들은 지난 시기 꽃망울따주기를 잘하여 성과를 거둔 제1, 2작업반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작업반들에서는 지난 시기 감자포기들에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하면 따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었다. 한편 작업반기술원들은 포전을 돌아보면서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 그들은 한가지 사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꽃망울을 따지지 않은 포전에 비해 감자알들이 류달리 큰것이였다. 감자알들이 잘 여물것은 물론 꽃망울을 따지지 않았을 때보다 정보당 수출이 5~10%

더 높았다. 특히 꽃보다 꽃망울을 따주었을 때 더 높았다.

비결은 꽃망울이 생기고 꽃피는데 들어간 많은 영양물질이 감자알이 크는데 돌려받기때문이었다. 이곳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감자포기들이 백이들어가는 영양물질의 10% 정도가 꽃망울이 생기고 꽃피는데 소비되는데 꽃망울을 따주면 이 영양물질이 감자알이 크는데 돌려받다고 한다.

올해에 정보당 감자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꽃망울을 제때에 따주는데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된 일꾼들은 모든 작업반들에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도록 하였다.

이때 그들이 잘한것은 꽃망울이 생기기 시작하는 첫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며 송이체로 잘라버리는 방법으로 하게 한것이다. 이때 어린 꽃망울은 줄기끝의 잎속에 있기때문에 잎이 잘려지지 않도록 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들리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반들에서 꽃망울 따주기를 제때에 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내밀었다.

농업근로자들은 감자의 생육상태를 알아보면서 꽃망울 따주기에 성실한담을 비치고있다.

본사기자 윤용호

### 천연생물활성제를 적극 리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널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벼이삭의 여물어는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로부터 백천군 일꾼들은 벼이삭의 여물어는 높이는 데 천연생물활성제를 리용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삭이 패고 수정되어 여는 시기에 비바람이 자주 불고 해비침들이 낫으며 때때로 고온현상도 나타나는것은 문제이지만 기본은 전반적인 농장들에서 이 활성제를 농사에 처음 리용하는것이였다.

이 문제를 놓고 군일꾼들은 지난해 천연생물활성제를 써서 알곡생산에 늘인 조국협동농장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지난해 이 농장에서는 600L의 물에 이 활성제 1kg을 풀다 벼이삭이 나오기 전에 3회 시비한데 그치지 않고 수정되어 여는 시기에 2회 분무하였다. 한편 작업반기술원들은 포전들을 매일 돌아보면서 생육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 그들은 한가지 사실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이었지만 벼이삭이 류달리 싹났었다.

가을의 결실은 이 활성제의 우월성을 알곡생산성과 증명해 주었다. 그 어느 논벼포전을 보나 죽어가 없는것은 물론 활성제를 시비하지 않았을 때보다 이삭당 알수는 5~6알 더 많고 천일질량도 0.6~1.2g이나 많았다. 따라서 정보당 수확고가 지난 시기보다 260~300kg이나 높았다.

비결은 천연생물활성제에 린, 칼리, 페놀 등은 물론 각종 미량원소와 많은 원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논벼의 생육이 지난 시기보다 더 좋아진데 있었다. 이것은 벼이삭의 여물어는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의 하나가 천연생물활성제를 기술적으로 구태로 시비하여 그 효능이 잘 나타나게 하는데 있다는것을 확증해 주었다.

군일꾼들은 신심을 가지고 이 농장의 경험을 모든 농장들에 일반화하였다.

이때 그들이 잘한것은 벼이삭이 패어 수정되는 기간은 며칠밖에 안되므로 이 시기에는 논에 들어가지 마며 비가 내릴것이 예견되거나 내린 후에는 이 활성제시비를 하지 않도록 한것이다.

그러하여 신원, 수원, 금성, 추정, 오봉, 봉화협동농장을 비롯한 군인의 모든 농장들에서 모내기날자와 논벼의 품종

과 생육단계에 따라 천연생물활성제를 기술적으로 구태로 시비하기 위한 계획이 면밀하게 세워졌다. 한편 비료시비공들은 예견되는 날씨와 논벼의 생육상태를 알아보면서 이점과 저녁시간에 이슬이 없을 때 활성제를 시비하였다.

일꾼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데 알곡증산의 열의가 있다고 하면서 천연생물활성제시비를 정확히 하도록 지도사업을 짜고 들었다. 포전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하여 받아들이던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이 은이 나도록 하였다. 농장원들도 뜻깊은 올해에 기여하여 천연생물활성제 점령할 열의를 안고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였다.

앞선 영농방법과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품을 들인 보람으로 포전마다 활성제의 효능이 잘 나타나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더욱 높일수 있는 전망이 마련되고있다.

이곳 군일꾼들의 경험은 불리한 날씨조건을 극복할수 있는 논벼양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알곡생산성과 담보해 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창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과학기술성공들을 제때에 생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야군 봉흥협동농장의 일꾼들은 8월에 들어서면서 생각이 깊어졌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점령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마지막 논벼비배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것만 같았다. 이 과정에 어떤 사실에 주목을 둘리까 되었다.

지난해 이 포전층에는 특산물과 아미노산비료와 노소액이 많이 들어있었다. 그렇기 하나 다른 포전에 비하여 이삭이 고르며 낫아 이삭당 알수가 많고 여름에 높았으며 천일질량이 높았다. 이 사실을 놓고 일꾼들은 특산물에 대하여 분석을 심화시켰다. 특산물에는 미량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특히 살균력이 강한 리튬성분과 티오균도 들어있었다. 결과장마철에 바람이 세게 불고 해비침들이 떨어지기도 벼가 병에 걸리지 않았으며 벼가 실해지고 익색이 진해져서 이삭이 축진 되었었다. 그리고 벼뿌리의 황색도 높아지게 되었다.

신심을 가진 일꾼들은 올해 모든 포전들에 이 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우선 생육후반기 영양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당 물 500L

효과적인 흰잎마름병예방대책 동림군 룡산협동농장에서

동림군 룡산협동농장에서 지난해의 논벼농사경험을 통하여 흰잎마름병은 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막는것이 더 효과적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흰잎마름병에 걸린 포전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은 포전에서보다 정보당 수출이 1~2%나 높을수 있었다.

여기로부터 농장에서는 흰잎마름병을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여러가지 영농방법을 실천에 맞게 받아들이었다.

본사기자 김창길

나도독! 피혁의 중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사기자 리명정

본사기자 정성일

## 선군으로 안아온 내 조국의 밝은 미래



가없이 푸른 내 조국의 하늘을 배경으로 《세상에 부림없어라!》의 구호가 밝게 빛난다. 아이들의 호텔, 아이들의 궁전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학생소년들의 행복넘친 노래소리, 기쁨과 환희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진다.

정녕 어떻게 마련되고 지켜진 행복이던가.

지금도 눈곱만큼도 안겨온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선군조선의 창창한 앞날을 띠고있는 젊은이들의 전진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모습이!

조국의 밝은 미래와 후대들의 웃음을 총대고 굳건히 지켜주어야 한다는것은 어버이장군님의 드림없는 신념이요 의지였다. 하기에 오늘날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는 장군님은 전진하는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와 더불어 오성산의 갈매리길, 파도세찬 초도의 배길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그렇다. 어버이장군님께서 한평생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가 있어 이 땅에 미래사랑, 후대사랑의 화원이 활짝 꽃피고 장군님의 높은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어버이 품이 있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그토록 밝은것이 아니라.

그 사랑, 그 은성 길이 전하며 아이들이 밝게 웃어라, 더 활짝 피어라, 선군조선의 미래는 영원히 너희들의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성남

# 우리 군대가 높이 추켜든 구호—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깃든 명절로 아로새겨진 선군절이 하루하루 다가온다. 온 나라에 깔렸던 환희와 기쁨이 차넘친다.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용령장군 105명사단에 영도의 자욱을 새기신 뜻깊은 날인 주제 49(1960)년 8월 25일, 이날과 더불어 백두산혁명장군으로 위용편치된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의 력사의 얼마나 자랑스러운 승리와 영광의 길마 아로새겼는가.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난 기간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보위하며 조국과 혁명의 영적중추를 수호하기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왔으며 당과 혁명앞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왔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을 선군혁명의 첫째가는 중대사로 보시고 우리 군대를 당의 위업에 풀없이 충실한 수령의 대대, 필승불패의 혁명강군으로 키워 우리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조국의 안전과 사회주의를 지키기 위한 준엄한 반제국주의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수순한 아전복자됨으로 철령과 오성산, 초도와 판문점을 비롯하여 인민군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찾아서며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

##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의 강군으로 역세게 자라났다.

조국의 초소와 고지들마다에 《결사옹위!》의 합성이 차넘치고 당과 수령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어 해내고야마는 결사판필의 정신이 세차게 나뉘었다. 신념도 배짱도 위대한 장군님을 닮은 우리 군인들의 혼연장마에 백두산혼련영웅이 새차게 휘몰아치고 군인들모두가 적들이 감히 덤벼들면 단애에 처부실수 있는 일당백의 펠벌 나는 싸움꾼으로 준비되었다.

그 나날에 얼마나 많은 평범한 전사들이 영웅으로 자라나고 당과 수령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값있고 빛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

김영조, 김광철, 리철민...  
라테지는 불길속에 서슴없이 뛰어들어 우리 혁명의 단련제보인 혁명적주요원들을 한몸바쳐 구원한 무제봉의 17명 영웅들과 당명대해우에 김일성민족의 승고한 인생관을 아로새긴 영웅전사들...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이름에 인민이라는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조국의 수호자로서뿐 아니라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 부강조국건설에도 뚜렷한 자욱을 남기게 되었다.

조국방 방방곡곡에 일떠선 기

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생활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사회주의적 부들에는 우리 인민군인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들어있다.

온 세상이 감탄을 금치 못하는 서해갑문이 건설되던 나날에 육중한 합형부재를 바다에 가라앉히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던 때 이런 일이 있었다.

모든 준비를 갖춘 끝에 시계를 돌려다보던 돌격대장이 구령을 내리었다.

《폭파준비!》  
두명의 폭파수가 각기 합형부재의 결핵부에 설치한 장안에 스프링을 넣어 폭파해야 했다. 폭파수들은 합창하여 대담했다.

《폭파준비 끝!》  
《폭파!》  
폭파소리가 울렸다. 그런데 한쪽 30m구간에서만 폭파가 진행되었고 다른 한쪽구간은 잠잠했다. 합형부재가 부딪칠 때선이 끊어져 나갔던 것이다. 한 지휘관이 뛰어들었다. 4m이상이나 선이 모자랐다.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이 없었다.

그는 끊어진 전기선을 한쪽에 옮겨주었다.

(내모도 전류가 흐르게 해야 한다.)  
그런데 자기의 한몸으로써는 4m가 넘게 모자라는 선을 이을 수 없었다. 그는 웨쳤다.

《누가 내손을 잡겠소?!》  
그의 웨치는 팔았지만 서로 손을 맞잡고 전기선을 잇자는

뜻임을 군인들은 깨달았다.

분대장이 먼저 뛰어들어 지휘관의 한쪽손을 붙여잡고 늘어선 자 또한 군인이 나는듯이 뛰어 들어갔다. 그들은 한순간에 손에 손을 맞잡고 활개를 벌려 공간이 생긴 전기선을 이었다. 그리고는 웨치는것이였다.

《어서 스위치를...》  
사람들이 설레고 폭파수는 눈물을 땀주었다. 돌격대장의 눈에도 뜨거운것이 고였다.

《돌격대장동지, 구령을 치십시오!》  
군인들이 재촉했다. 지휘관은 목메인 소리로 구령을 쳤다.

《폭파!》  
순간 세명의 전사들의 몸으로 전류가 번개처럼 흘렀다. 또한 그순간에 폭파소리가 메아리쳤다.

전사들이 뛰어들어가 자기의 몸으로 전기선을 대신한 동지들을 붙안아내었을 때 그들은 미소를 머금고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정녕 당과 수령의 명령이라면 자기의 한몸속 서슴없이 바쳐 관철한 월미도의 영웅전사들의 모습과도 같았다.

어버이수령님을 잃은 민족적대의 국상을 당해 온 나라가 피눈물에 잠겼던 주제 83(1994)년, 그해 11월 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시에 청류대리(2단계)와 금릉동공을 건설할 때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우리 인민이 즐겨부르는 노래 《병사는 버이삭 설레이는 소리를 들네》, 《먼저 찾아오, 《달해주리 병사의 사랑을》, 《조국은 병사들을 잊지 않아요》 등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값높은 위훈의 자욱을 아로새긴 우리 군대의 고상한 공포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땀 앞장에서 받들어 백두산혁명장군의 위업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라는 승고한 사명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전사들이 바로 우리의 인민군인들이다.

원수격멸의 의지로 심장을 끓이며 혼련장에 나서면 명사수, 명포수의 자랑떨치는 군인들이 있기에 우리의 조국은 금성철벽이다. 인민의 고귀한 재부를 마련한다는 긍지를 안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는 군인들의 뜨거운 마음에 의하여 일떠선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또 얼마인가.

마시령스키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우리의 백두산혁명강군은 앞으로 우리의 흥대는 영원히 당과 그 위업을 굳건히 담보하는 혁명의 지령이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승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승고한 본분을 훌륭히 수행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현 경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해주신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계속 들고나가야 합니다.》

지금도 수도시민들은 미제와 온갖 원수들의 악랄한 핵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전쟁전야의 참예한 정세가 조성된 때에 원수격멸의 전초선을 지켜야 할 인민군인들이 합창강과 보통정리공사장, 공원들에 달려나와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던 헌신적인 투쟁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인민을 위하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을 심장마다에 아로새기고 전투현장에 달려나온 인민군인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합창강정리공사가 시작된 첫날에 벌써 강사처리가 절반적으로 육박하였고 48시간만에 수문, 다리들의 보수가 끝났다. 인민군인들은 공격속도를 더욱 높여 단 며칠사이에 수십만㎡의 감량을 피하고 2만㎡의 용벽보수와 셋이내기, 수십만㎡의 지대정리, 잔디심기 등 공사과제를 완전히 끝냈다.

인민군인들은 편이여 보통강 정리에투여 달라붙었다. 보통강 바닥과기와 호안공사의 규모와 공사량은 엄청났다. 하지만 인민군인들에게는 정령 못할 요소가 없었다. 감량과기와 운반, 대

상별주변정리작업들을 립체전, 설비전의 방법으로 동시에 해체할 대담하고 특이 큰 작전을 펼친 인민군인들은 전투에 진입한지 하루만에 수십만㎡의 감량을 외달당 피냈으며 6일째 되는 날에는 감량과기와 운반을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인민군인들의 힘찬 투쟁으로 9만㎡의 지대정리가 끝나고 수천㎡의 면적에 잔디가 새로 심어져 단 9일만에 보통강수변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뜨거운 인민 사랑과 위대한 애국헌신의 발걸음에 마음을 따라세우며 또다시 평양시내 곳곳으로 달려간 인민군정병들은 한달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수많은 공원들을 새롭게 꾸리었다. 공원들에 아름다운 꽃지가 생겨나고 배구장, 풍구장, 바드민턴장과 로스카스대장들이 꾸려졌으며 각종 유희 및 운동기구들도 설치되었다.

그나날 평양시의 이르는 곳마다에 펼쳐진 감동적인 화폭에서 수도시민들이 받아안은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원수들의 무분별한 핵전쟁소동으로 이 땅에 엄혹한 정세가 조성된 속에서 《인민을 돕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아글라를 애쓰는 이원군대가 있어 내 조국이 끄떡없으며 인민의 행복의 터전은 영원하다는 굳건한 믿음이였다.

본사기자 리 건 일

## 인민을 돕자!

인민을 돕자! 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아글라를 애쓰는 이원군대가 있어 내 조국이 끄떡없으며 인민의 행복의 터전은 영원하다는 굳건한 믿음이였다.

본사기자 리 건 일

##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 새겨진 위훈의 자욱

혁명의적군인정신이 낳은 창조물

선군혁명의 기상을 떨치며 자라높이 솟아 빛나는 안면청년발전소는 당과 수령의 무릎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이 낳은 고귀한 창조물이다.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방향을 높이 받들고 발전소건설에 떨치신 인민군인들은 120여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구호 밑에 자연의 힘포를 완강하게 이겨내며 공사를 다그친 군인들의 혁명적기상으로 하여 건설은 밤낮으로 불도가나마냥 뛰어 번졌다. 실로 안면청년발전소 건설전투에서 발휘한 인민군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은 오늘도 사회주의수호전과 경제강국건설의 위대한 추동력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인민들을 돕어야 사랑하며 인민의 이익과 생명재산들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고 목숨바쳐 지키야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군민대결의 전통적미풍이 날로 활짝 꽃피는 내 조국의 하늘가에 한편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병사가 인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풍요한 들판과 마을에 물어보라 그러면 달해주리 농장을 도와 가꿔준 이삭들이 등에 업혀 물결너간 유치원 아이들...

노래에도 있듯이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는 우리 병사들의 헌신의 자욱은 내 조국의 풍요한 들판과 마을, 이름모를 내가에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몇해전 숙천군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농장의 100여유치원으로 인민군지휘관들과 병사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승고한 후대관, 미려함을 꽃피우는 길에 응당 우리 군인들이 일장서야 한다고 하면서 그날로 유치원보수전투에 달라붙었다. 지휘

## 조국땅 그 어디에나

판들은 유치원보수에 필요한 세멘트와 모래 등 건설용재들을 마련할수 있게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고 적극 때밀어주었던 병사들을 유치원들이 어찌기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꾸리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였다.

유치원어린이들에게 수질이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 우물을 파고 아이들도 뜨뜻한 방에서 자낼수 있게 온돌도 새로 놓아주며 유치원마당을 더 넓고 번듯하게 꾸어주는 등 인민군인들이 기울인 정성은 그야말로 천황적, 천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기에 군인들의 헌신에 의해 물라보게 변모된 유치원을

병사들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고 물결공사장과 발전소건설장, 탄광과 광산 그리고 산간벽촌의 립산작업소 강릉생산전투장에 가보아도 인민을 전심으로 도와준 군인들에 대한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을수 있다.

오늘 이 땅 어디나 새겨져있는 병사들의 애민의 자욱에서 사랑들은 우리 인민군대의 참모습을 심장으로 뜨겁게 새겨안고있다.

본사기자 리 남 호

최현발전소는 최고사령관의 명령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옮기는 우리 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이 낳은 위대한 창조물이다. 조선조선의 최강의 무기인 군민대결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조선인민군 군인건설자들은 최현발전소건설에서 제일 방대한 통일연계건설을 700여일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전천-통일연계도로포장공사와 통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현발전소, 대단한 부대로 내세워주신 근위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물결굴착 및 복구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으며 최현발전소 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운 영다리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장, 육류양동병원과 류경구장병원, 문수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먼 후대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일떠 세움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본사기자

## 단숨에의 기상으로

리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도 새로운 공명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립체전을 벌려 최현발전소건설에서 제일 방대한 통일연계건설을 700여일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전천-통일연계도로포장공사와 통

리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도 새로운 공명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립체전을 벌려 최현발전소건설에서 제일 방대한 통일연계건설을 700여일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전천-통일연계도로포장공사와 통

리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도 새로운 공명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립체전을 벌려 최현발전소건설에서 제일 방대한 통일연계건설을 700여일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전천-통일연계도로포장공사와 통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자랑스러운 재부들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군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은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창조물에도 뜨겁게 새겨져있다.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만복을 안겨 주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승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현발전소, 대단한 부대로 내세워주신 근위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물결굴착 및 복구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으며 최현발전소 발전소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운 영다리건설에서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장, 육류양동병원과 류경구장병원, 문수물놀이장,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로동자합숙,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먼 후대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일떠 세움으로써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였다.

본사기자

단숨에의 기상으로

리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도 새로운 공명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립체전을 벌려 최현발전소건설에서 제일 방대한 통일연계건설을 700여일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전천-통일연계도로포장공사와 통

단숨에의 기상으로

리군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조선인민내무군 군인건설자들도 새로운 공명들을 끊임없이 창조하며 립체전을 벌려 최현발전소건설에서 제일 방대한 통일연계건설을 700여일만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전천-통일연계도로포장공사와 통

##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스웨리에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 경모의 정 표시

민주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 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9일 니콜라스 스반스트립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웨리에

안전 및 개발정책연구소대표단 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조국의 통일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평생을 바치시였으며 세계 자주화위업

수행과 나라들사이의 친선관계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스스로 찾아야 하야 합니다.》

체육기재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여 생산단위에 공급하는 것이 임무인 이 단위에서 질 좋은 체육기재를 만들어내게 된

최근 체육기재재생산관리국 자재상사 평양시지구자재공급소에서 생산한 《최우수》상표의 체육기재가 사람들과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특히 이 단위에서 만든 축구공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가장 우수한 체육선수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인 《최우수》상표도 뜻이 깊고 새롭지만 질 또한 높고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영웅적인 투쟁을 스스로 찾아야 하야 합니다.》

체육기재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여 생산단위에 공급하는 것이 임무인 이 단위에서 질 좋은 체육기재를 만들어내게 된

## 스스로 걷는 길

체육기재재생산관리국 아래단위 일군들과 종업원들

메는 사연이 있다. 지난해 주위의 어느 한 청소년체육학교를 찾은 기회에 학교에서 리용하는 축구공, 배구공질대를 구체적으로 로해해본 소장 최정춘동무는 마음이 무거워지셨는데 우 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학교에서 들어오는 종업원들에게 좀 힘들더라든 다른 나라의것에 못지 않는 공을 자체로 만들어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주자고 뜨겁게 호소하셨다. 그의 말에 종업원모두가 열렬히 호응해나섰다. 그들은 지

체없이 공제작에 달라붙었다. 그러나 정작 시작해놓고보니 공을 자체로 만든다는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생산에 필요한 설비도 문제거리와 어느 체육기재와는 달리 축구공, 배구공제작에 따르는 기술과 숙련이 부족했것이 제일 안락했다. 종업원들은 점차 손맥을 놓기 시작했다.

그러던 최정춘동무의 눈앞에 문득 군사부부시절이 떠올랐다. 최정춘동무에서 중대정치지도원으로 복귀하면서 병사들을 위해 밤잠을 잊어가며 애쓰던 날과 초소에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을 몸가짜에서 뵈었던 감격...

어버이장군님께서 중대의

합방식, 제질 등을 연구하였다. 공제작에 필요한 설비를 마련하고 나이가 많아 집에 들어가지 귀고있는 오면 기술공들의 방조를 받기 위해 걸은 밤길은 또 얼마이던가.

오늘도 최정춘동무와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질 좋은 체육기재를 생산하는데 성공하였다. 지금 이들이 만든 축구공을 비롯한 체육기재를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의것보다 우리의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고있다.

그날의 영광을 되새겨보든 최정춘동무에게는 또 또 모르게 새 힘이 솟아났다. 그는 먼저 축구공, 배구공을 파악하는 일에 달라붙었다. 한밤을 지새다 싶이 하며 기술서적들을 탐독했고 청소년체육학교들에서 리용하고있는 공가운데서 질이 국제적수준에 가깝다고 하는것들을 얻어다 공의 구조와 그걸

## 9월5일상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 폐막

9월5일상 전국대학생체육경기대회가 폐막되었다.

각지의 대학, 전문학교들에서 선발된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한 경기대회에서는 국방체육과 축구, 풍구, 배구, 탁구를 비롯한 여러 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다.

선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받들고 대중체육을 활발히 벌리는 과정에 편마하여 온 높은 체육기술과 집단주의 정신을 경기마다에 남김없이

이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승리의 신비에 넘쳐 경기에서 나선 박정주선수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평시에 편마한 높은 기술과 완강한 투지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그는 순간제기와 빠른 추기, 각 1등을 하였다.

전문학교국방체육에서는 라선상업전문학교(남자), 중앙관리학원(여자) 선수들이, 풍구 경기에서는 중앙관리학원(남자), 평양총계전문학교(여자) 선수들이 1등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폐막식이 19일 함흥에서 있었다.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경취한 단체와 선수들에게 표창장과 우승금,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었다.

##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전국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개막

## 재일동포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

한봉회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

## 포로조국방문단이 19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포로조국방문단이 19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 침략의 무리들은 우리 식의 선제타격이 어떤것인가를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 침략세력의 전횡에 중지부를 찍어야 한다

며칠전 우리는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개선의 전향적국면을 열어나가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담은 조국통일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에는 현시기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필수적문제들, 특히 조선반도의 공고한 간섭을 끝장낼때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어있다.

그런데 남조선피괴들은 북의 성명에는 상관없이 미국과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하면서 18일 북침합동군사연습의 포장을 끝내버리었다.

이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로 분열의 비극을 가지고 평화와 번영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북남관계개선훈련에 침략적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대담해나선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의 호전적행동에 치초는 증오와 적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조국통일위원회 성명은 민족의 분열과 고통의 회관을 제거하고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것으로서 지극히 정당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 장애입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종결후 외세의 리해관계에 따라 우리 민족이 분열된 채 생겨난 문제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을 북과 남으로 갈라놓은 장본인이다.

다른 민족을 분열하여 통치하는것은 미국의 상투적수법이다. 미국은 해방후 패망한 일본군의 무장제제를 구실로 남

조선을 불법강점하고 세계제패를 위한 침략의 교두보로, 극동최대의 군사기지로 전락시켰다. 우리 민족의 혈액과 지맥을 두동강낸 미국은 오늘도 구태의연하게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 아시안태평양중심전략을 내놓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패권과 군사적지배를 확립하기 위해 기승을 부리고있다.

미국은 임버못처럼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지지》를 떠들어대고있다. 하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북남대결상태의 지속을 통해 저들의 침략적리익과 지배주의적 야망을 실현하려고 꾀하고있다.

미국이 내외의 강력한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을 사육하여 복침을 가산한 합동군사연습을 백지내게 버려놓았다는것은 조선반도정세를 대결과 긴장의 극단상태에 몰아가고자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가로막고 우리를 해치려는 술책이다. 최근 미국의 고위인물들이 우리를 헐뜯는 악담들을 연일 계속하고 미군부가 남조선에 최선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며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강행하는데 그들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하여 조선반도에 통일강국이 일떠서는것을 바라지 않고있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외세에 의하여 분열된 우리 민족은 외세 때문에 아직도 나라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있다. 외세의 부당한 간섭과 방해책동으로 말미암아 간고한 시련과 어려움을 겪어 오고있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사는 외세에 의지하고 그와 공조하여서는 북남관계문제와 조국통일문제를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는것을 진리로 새겨주고있다.

미국은 외세에 의지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그에 의존함이 없이 우리 민족적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그자체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할것을 요구한다. 우리 나라

의 통일문제는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액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외세에게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한다는것은 예측의 옮기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것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우리 겨레의 운명에 관한 문제, 전도와 관련된 문제로서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다. 제정안문제를 주인들끼리 풀어나가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 어떤 외부세력도 우리 민족의 내정에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또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자주통일위원회는 조국통일의 주체인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써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다.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의지도 그 어떤 다른 세력이 아닌 우리 민족에게만 있고 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능력도 우리 민족에게만 있다.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투쟁에서 마땅히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구원해나가기 한다. 바로 여기에 나라의 통일문제를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근본력이 있다.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 대해 조종자 역할을 해야 한다. 통일의 압적조건인 미국이 남조선에 타고있어 모든것을 좌우하고있는 조건에서 북남관계개선을 개진해나갈수 없고 언제가도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수 없다. 미국이 북남관계문제, 우리 민족내부문제에 끼여들어 강요해 배반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하루속히 끝장내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 지속되고있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날 용단을 내리야 한다. 남조선당국의 외세의존정책은 사대주의와 동족대결의식의 발로이다. 분열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방해꾼인 외세의 책자공이를 하는것은 북남관계발전의 기초와 근본을 허물고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렬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매국반역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편에 서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 《북북압박공조》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편에 서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 《북북압박공조》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편에 서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 《북북압박공조》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 국제경기대회의 분위기는 누가 해치는가

최근 우리는 자위적 국방력강화조치의 한 고리로 건설로케트발사 훈련을 연속적으로 진행해오고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미국의 대외외세와 동족대결의식의 발로이다. 분열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방해꾼인 외세의 책자공이를 하는것은 북남관계발전의 기초와 근본을 허물고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렬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매국반역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편에 서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 《북북압박공조》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편에 서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 《북북압박공조》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편에 서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 《북북압박공조》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최근 우리는 자위적 국방력강화조치의 한 고리로 건설로케트발사 훈련을 연속적으로 진행해오고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미국의 대외외세와 동족대결의식의 발로이다. 분열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방해꾼인 외세의 책자공이를 하는것은 북남관계발전의 기초와 근본을 허물고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렬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매국반역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편에 서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 《북북압박공조》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편에 서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 《북북압박공조》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편에 서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 《북북압박공조》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최근 우리는 자위적 국방력강화조치의 한 고리로 건설로케트발사 훈련을 연속적으로 진행해오고있다. 이것은 날이 갈수록 미국의 대외외세와 동족대결의식의 발로이다. 분열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방해꾼인 외세의 책자공이를 하는것은 북남관계발전의 기초와 근본을 허물고 민족의 운명을 외세의 통렬물로 내맡기는 수치스러운 매국반역행위이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편에 서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 《북북압박공조》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편에 서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 《북북압박공조》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당국은 망국적인 외세의존정책을 버리고 미국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민족의 편에 서야 하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문제,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 립장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란다면 지역정세악화의 근원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반대해나서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외세의 《북북압박공조》 놀음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 우리를 자아내는 위험천만한 불량난소동

력사를 거슬러보건대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며 더욱 교활하고 호전적으로 강행되어왔다. 지난 조선전쟁이후 60여년간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벌여온 것은 각기 다른 명칭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공개된것만 하더라도 무려 1만 8 000회 이상이다.

미국은 제2차 조선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핵전쟁문제를 작성해놓고 그것을 부당한 수단으로 강행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포커스 펜스》와 《포커스 페터》 합동군사연습을 발표적으로 벌이고 1970년대에는 《스프링리프》,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하였다. 이 핵전쟁연습들은 《오스트레일》, 《뉴질랜드》, 《280mm원자폭탄》, 《B-1B》 원자폭탄, 핵잠수함 등을 동원하였으며 《펜스》 핵미사일 발사연습까지 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초까지 끊임없이 계속된 《스프링리프》 합동군사연습에는 해마다 수십만명의 침략병력과 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동원되었으며 무려

2~3개월간이나 진행되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스프링리프》 합동군사연습에 내외의 강력한 규탄과 항의에 직면하게 되자 1994년부터 60여년간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벌여온 것은 각기 다른 명칭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공개된것만 하더라도 무려 1만 8 000회 이상이다.

미국은 제2차 조선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핵전쟁문제를 작성해놓고 그것을 부당한 수단으로 강행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포커스 펜스》와 《포커스 페터》 합동군사연습을 발표적으로 벌이고 1970년대에는 《스프링리프》,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하였다. 이 핵전쟁연습들은 《오스트레일》, 《뉴질랜드》, 《280mm원자폭탄》, 《B-1B》 원자폭탄, 핵잠수함 등을 동원하였으며 《펜스》 핵미사일 발사연습까지 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초까지 끊임없이 계속된 《스프링리프》 합동군사연습에는 해마다 수십만명의 침략병력과 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동원되었으며 무려

2~3개월간이나 진행되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은 《스프링리프》 합동군사연습에 내외의 강력한 규탄과 항의에 직면하게 되자 1994년부터 60여년간 미국과 남조선호전파들이 벌여온 것은 각기 다른 명칭의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공개된것만 하더라도 무려 1만 8 000회 이상이다.

미국은 제2차 조선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핵전쟁문제를 작성해놓고 그것을 부당한 수단으로 강행하였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포커스 펜스》와 《포커스 페터》 합동군사연습을 발표적으로 벌이고 1970년대에는 《스프링리프》,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시작하였다. 이 핵전쟁연습들은 《오스트레일》, 《뉴질랜드》, 《280mm원자폭탄》, 《B-1B》 원자폭탄, 핵잠수함 등을 동원하였으며 《펜스》 핵미사일 발사연습까지 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초까지 끊임없이 계속된 《스프링리프》 합동군사연습에는 해마다 수십만명의 침략병력과 핵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각종 핵전쟁장비들이 동원되었으며 무려

## 긴장을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미국이다

조선반국평화를 위협하는 영남북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하라

알려진바와 같이 얼마전 조국통일위원회는 8.15를 계기로 성명을 발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 확고한 의지를 남조선당국에 천명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주동적인 노력을 적극 기울이고있지만 미국은 그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오고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강행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조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미국이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엄중한 군사적도발로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고있으며 끊임없이 지속되어온적은 있어본적없다.

특히 오바마행정부가 아시안태평양중심전략을 내놓고 그 화살을 조선반도에 집중하면서부터 이 지역정세는 날이 갈수록 더욱 첨예해지고있다.

미국은 저들의 대아시아적 배타적우려를 위한 정치군사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반도를 항시적인 열점지역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다.

미국은 이미 《현안》 호사건의 조작을 통하여 북남사

이의 군사적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전제공격준비를 조지부지해버렸을뿐 아니라 있지 않은 그 누구의 《위협》을 구실로 피괴들에게 《확장적 위협》을 가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남조선당국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남조선당국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남조선당국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있는것을 볼수 있다.

우리 공화국이 정부성명을 통하여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다는것을 밝히고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있는때에 미국은 그 무슨 《연례적》이라는 간판만을 《조지워싱턴》 호행항공모함전단을 남조선에 들이밀고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으며 서쪽의 통산미군기지에 남조선미군연합군사령부를 계속 불려오고 미2사단의 일부를 무리대로 군사분계선에서 철수시키지 않고 우겨대고있다.

동시에 군사대화를 노리며 제정의 칼을 갈고있는 일본과의 위험한 군사적협박강화로 남조선호전파들을 매료시키고있다.

북남관계개선을 직접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도발행위는 더욱 포괄적이다.

지난 2월 우리의 주동적인 제에 따라 판문점에서는 북남사이에서 흥이겨, 친척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이

로막이온것은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자주권이 외세의 간섭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어온 민족은 새로운 정책 즉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수십년간 유지해온 정책이 완전히 무효한 결과를 낳고있는 지금에 와서 그 전철을 계속 밟는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어리석은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행위에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도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계속할것이다.

미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악랄하게 강행하는것을 우리의 자위적군사력은 더욱 역활같이 다져질것이며 외세와 민족친연투쟁의 군사적도발행위를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배배해질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준

로막이온것은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자주권이 외세의 간섭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어온 민족은 새로운 정책 즉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수십년간 유지해온 정책이 완전히 무효한 결과를 낳고있는 지금에 와서 그 전철을 계속 밟는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어리석은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도발행위에도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도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계속할것이다.

미국이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악랄하게 강행하는것을 우리의 자위적군사력은 더욱 역활같이 다져질것이며 외세와 민족친연투쟁의 군사적도발행위를 단호히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성취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배배해질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준

요람기의 청소년 우리 공화국과 소비련 침략력사를 자랑하는 제국주의피수와의 3년간의 전쟁은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 끝나지 않은 전쟁

연습을 줄줄이 벌여놓고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연습을 줄줄이 벌여놓고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연습을 줄줄이 벌여놓고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미제와 남조선피괴들이 정전후 이렇듯 시작되었다.

## 북침선제공격연습을 중지하라

남조선 각계의 반전평화투쟁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방대한 침략병력이 동원된 가운데 강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명백히 동족을 해치기 위한것이라고 까닭하면서 당국이 외세의 북침전쟁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화해와 협력을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일에는 서울에서 로동자, 청년, 대학생들 비롯한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반미반전》가 울려 퍼지는 속에 두주먹을 부르짖고 《반미반전》, 《자주》, 《평화통일》을 웨치며 기세를 올렸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의 한 성원은 발언에서 북의 자위적성격의 핵역적력은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 방해하면서 전쟁도발행위를 광범하고 수많은 우리 겨레를 살상해온 침략자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망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방대한 침략병력이 동원된 가운데 강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명백히 동족을 해치기 위한것이라고 까닭하면서 당국이 외세의 북침전쟁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화해와 협력을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일에는 서울에서 로동자, 청년, 대학생들 비롯한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반미반전》가 울려 퍼지는 속에 두주먹을 부르짖고 《반미반전》, 《자주》, 《평화통일》을 웨치며 기세를 올렸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의 한 성원은 발언에서 북의 자위적성격의 핵역적력은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 방해하면서 전쟁도발행위를 광범하고 수많은 우리 겨레를 살상해온 침략자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망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방대한 침략병력이 동원된 가운데 강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명백히 동족을 해치기 위한것이라고 까닭하면서 당국이 외세의 북침전쟁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화해와 협력을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일에는 서울에서 로동자, 청년, 대학생들 비롯한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반미반전》가 울려 퍼지는 속에 두주먹을 부르짖고 《반미반전》, 《자주》, 《평화통일》을 웨치며 기세를 올렸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의 한 성원은 발언에서 북의 자위적성격의 핵역적력은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 방해하면서 전쟁도발행위를 광범하고 수많은 우리 겨레를 살상해온 침략자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망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방대한 침략병력이 동원된 가운데 강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명백히 동족을 해치기 위한것이라고 까닭하면서 당국이 외세의 북침전쟁정책을 당장 중지하고 화해와 협력을 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일에는 서울에서 로동자, 청년, 대학생들 비롯한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반미반전》가 울려 퍼지는 속에 두주먹을 부르짖고 《반미반전》, 《자주》, 《평화통일》을 웨치며 기세를 올렸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 본부의 한 성원은 발언에서 북의 자위적성격의 핵역적력은 내외호전세력의 북침전쟁연습과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에 방해하면서 전쟁도발행위를 광범하고 수많은 우리 겨레를 살상해온 침략자라고 성토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망

# 조미대결전에서의 법칙적인 두 전통은 영원히 흐를것이다

## 승리는 우리의 전통, 패배는 미국의 전통

조미대결력사는 수십년에 달한다. 세계는 미국이 시간적으로 제일 오래 하고 있는 전쟁은 조선전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조미는 기술적으로 아직 전쟁상태에 있다.

년대와 세기를 이어 대결해온 이 역사적 과정에 형성되고 계승되어온 법칙적인 두 전통이 있다. 하나는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결코마다 참패만을 당해온 미국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다.

이 두 전통은 그 어떤 모략선전으로도, 광란적인 압박운동으로도 뒤바꿀수 없다.

이번 7.27에 즈음하여 미국은 명분도 똑똑하지 못한 오바마의 《포고문》으로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패배를 《승전》으로 둔갑시키는 해피한 판매놀음을 벌려놓았다. 오바마는 그 《포고문》에서 역사적사실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말장난을 늘어놓았다. 이날에 또한 미국과 남조선피해자의 고위인물로 저처하는 어중이떠중이 300여명이 워싱턴교외에 있는 알링턴국립묘지리라는데 찾아가 조선전쟁에서 개죽음을 당한 미군장병들을 《추모》하는 놀음도 펼쳐놓았다.

사람들이 별로 찾가지도 않는 쓸쓸한 국립묘지앞에 도적교양이처럼 느닷없이 모여든 이자들은 누구도 보지 않는데서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결의》를 패배를 투수기어다 넣었다고 한다.

어찌구비가 없었던 미국과 남조선피해자의 어우러짐들이 오바마의 《포고문》대응을 빌어 6.25전쟁은 《잊혀진 전통》이 아니라 《번영을 안아온 승리》라는것이 《역사평가》라느니 뭐니 하며 황당한 나발을 계속 불어대고있는 것이다.

이런것을 두고 삶은 소가 웃다가 꾸레미처럼 노릇이 한다.

미국은 《그것말도 백만 하면 진실로 믿게 된다.》는 파시즘광신자들의 교리를 그대로 본따 허위모략선전을 벌리면서 당한 패배를 《승전》으로 뒤바꿀수 있다고 타산한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천박하고 유치한 사고이다.

오바마정권이 아무리 발악해도 역사적으로 뒤통을 맞고 녹아나기만 한 미국의 수치스러운 전통, 비대한 힘을 믿고 설쳐대는 미국을 결코마다 통쾌하게 족족 대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말살할수 없다. 왜냐하면 결코 고칠수도 습득수도 지어낼수도 없는것이 력사이기때문이다.

이 두 전통은 바로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 뿌리를 두고있다.

미지배층이 조선전쟁을 《잊혀진 전통》이라고 떠들어댄것은 결코 전쟁일이 짧거나 규모가 작아서가 아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저들의 참패상이 비격와 매우 수치스럽게 느껴지기때문이다.

지난 시기 미국의 출판보도, 영화부분은 조선전쟁을 잊지 않고있었으며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수많은 위급하였다.

1959년에 만들어진 《승리없는 전쟁》이라는 제목을 단 미국의 어느 한 작품에도 바로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미군이 술한 사망자를 낸 사실을 반영하였다. 작품은 미국잡지 《타임》이 미군이 조선전쟁에서 얻어맞고 퇴각하는것을 놓고 《최악의 패배》라고 전하였다는 자료와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먼이 자기의 일기에 제3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있는 상태였다고 썼다는 자료도 다 공개하였다.

최근에 나온 미국의 한 작품에도 이렇게 띄어놓았다.

《1953년 7월 27일 조선전쟁협정이 조인되었지만 조선은 3년전의 전조상태를 빌어 6.25전쟁은 《잊혀진 전통》이 아니라 《번영을 안아온 승리》라는것이 《역사평가》라느니 뭐니 하며 황당한 나발을 계속 불어대고있는 것이다.

이런것을 두고 삶은 소가 웃다가 꾸레미처럼 노릇이 한다.

미국은 《그것말도 백만 하면 진실로 믿게 된다.》는 파시즘광신자들의 교리를 그대로 본따 허위모략선전을 벌리면서 당한 패배를 《승전》으로 뒤바꿀수 있다고 타산한것 같은데 그것이야말로 천박하고 유치한 사고이다.

하지만 미국은 끝내 우리 인민앞에 굴복하여 정전협정문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난 조선전쟁이후 조미대결전에서도 우리는 항상 승리하였고 미국은 련속 패배하였다.

조선에서 새 전쟁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면서 기회를 노리던 미제는 1960년대에 무장간첩 《푸에블로》호, 《EC-121》대형간첩비행기를 련속 우리의 명해, 명공에 틀어넣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범죄적행위를 계속 벌여나갔다. 하지만 《푸에블로》호는 우리 인민군대에 의해 나포되었고 《EC-121》대형간첩비행기는 고공에서 격추되었다. 미국은 그때마다 도적이 매를 쓰는 격으로 보복을 운운하며 당장 전쟁을 일으키려치려 남쫓았지만 종당에는 사죄하거나 제물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1970년대 판문점사건때도 사건책임을 우리에게 몽땅 넘겨주고 전쟁도발음모를 실행하려다가 우리의 초강경대응에 부딪쳐 참패를 당하고말았다.

1980년대에도 미국은 도발적인 핵전쟁소동을 계속 벌리면서 북침작위를 마련하려고 미쳐날뛰었으나 그것 역시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 1990년대에는 우리의 《핵문제》를 결코 전쟁소동을 일으켰다.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에서의 탈퇴로 대답하자 기절초풍한 미국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건의 합의를 성취하고 위대한 궁극적인 합의문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미국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전례없는 담보서한을 올렸다.

트루먼으로부터 오바마에 이르기까지 미행정부는 수많은 바버였다. 그러나 미국의 대조선대시정책이 달라진적은 없다. 미국의 대조선대시정책 실행과 관련하여 공통적인것은 어느 행정부든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선제타격하려 한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1950년대 조선전쟁시 미국의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우리 나라와 중국동북지방에 30-50개의 원자탄을 투하할 작전을 세차례나 검토하였다고 한다. 지난 세기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를 이어오며 미국의 집권자들은 제2조선전쟁이 터지는 경우 핵폭탄즉시사용을 22차례나 검토 추진하여왔으며 90년대와 현재기 첫 10년대에 들어와 미합중합동본부의 작전대우에 놓인 조선전쟁작전도도 핵심전략적작전이었다.

21세기에 우리 나라를 핵선제공격방단의 우선순위에 빠졌이 올려놓은 미제는 우리의 평화적권리를 빼앗고 무장해제를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날로 강화되는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우리 공화국은 부득불 3차례에 걸쳐 핵시험을 진행하고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갔다.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서의 영예도 빛나게 떨치고있다.

미국의 독점물로 되었던 군사기술적우세는 드디어 끝났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핵위협이 완전히 종식된것은 승리자 우리이며 패배자가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확증해주고 있다.

우리의 핵보유로 하여 핵무기에 의지한 미국의 대조선대시정책은 총과산에 직면하였다.

오바마정권이 우리의 핵포기를 목적으로 한 《전략적인내》정책이라는것을 들고 나온것도 핵으로 우리를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시도가 완전히 좌절된 상태에서 막무대이하여 선택한 정책이다.

후러는 력사는 승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이고 참패는 미국의 수치스러운 전통이라는것을 똑똑히 실증해주고있다. 어길수 없는 이 법칙적인 두 전통은 앞으로도 영원히 흐르게 될것이다.

미국이 남조선피해들과 아합하여 핵소동을 일으키며 새 전쟁도발에 미쳐날뛰지만 그로 하여 차폐질것은 최종결판에 없다. 앞으로 세계는 미국의 운명이 어떻게 비참하게 갈나가는를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강철수

## 향 복 서

◇ 미국이 우리에게 바친 첫 항복서는 조선정전협정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조선정전협정에 수표한 미국 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를 지닌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승리없는 전쟁, 이것은 미국력사에 없는 불행이다.》 그가 남긴 이 고백은 오늘날 미국의 패배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처럼 전해져나오고있다.

조선전쟁이전에 미국은 정전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해본적이 없었다.

1945년 미군전함 《미주리》호의 함상에서 일본이 항복서에 수표한 후 미국은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공적이 자기에게 있는것처럼 얼마나 기고만장해하였는가. 하지만 그로부터 8년후 중국에게 처음으로 조선인민에게 수치스럽게 항복서를 바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승리자는 당당히 받고 패배자는 할수 없이 바쳐야만 하는것이 항복서이다.

◇ 미국으로부터 항복서를 계속 받아낸것은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에게 항복서를 바치기만 한것은 미국의 전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단독으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들과 싸워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를 수호한것은 세계사적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승리입니다.》

미국은 1950년대에만 우리 인민에게 항복서를 바친것이 아니었다. 1960년대는 물론이고 그 이후 현대에도 끊임없이 항복서를 바쳤다.

《푸에블로》호사건때에 미합중국정부의 이름으로 우리 나라에 사죄문을 바친 미국대통령 존슨은 《미국이 생겨 력사에 남긴 사죄문은 오직 그것 하나》이라고 우는소리를 쳤었다. 그러나 미국은 1969년에 있는 군용직속기사건때에 비행사들을 보내줄것을 간절히 요청하여 우리에게 사죄문을 보냈고 1994년 12월 미군정찰직속기사건때에 우리의 명공 불법침입을 인정하고 조종사들을 돌려보내줄것을 제기하여 당해문에 수표를 하였다.

《권력사적기구를 통해 사죄할줄 모른다.》고 호호치던 미제가 조미대결전의 권력사적과정에 머리를 꼭 수그리고 사죄문 등의 항복서를 련속 가져다바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상반되는 이 두 전통은 언제나 법칙처럼 흘러왔다. ◇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줄도 없게 모조리 쏟아버리다. 이것이 오늘 우리 혁명무력의 단호한 결심이 되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은 우리에게 항복서를 바쳐온 패배의 전통을 망각하고 북침핵전쟁소동에 계속 광분하고있다. 지금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있다.

만일 미국이 조선에서 새로운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것은 미국자신의 최종명말을 알맞는 것으로 필연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올해 전승절을 맞으며 싸움준비완성을 알리는 정예한 포성을 올렸다. 남조선 및 아시아태평양주둔 미제침략군기지는 물론이고 철막의 아성인 미국본토도 우리 전략군의 명중타격권에 들어있다.

조미대결전에서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미국의 멸망 또한 확정적이다.

## 세기를 이어 빛나는 전승의 력사

로씨야신문 《올라지보스토크》는 조선은 미제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미대결전의 력사는 조선인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의 력사이다. 60여년전 조선의 승리의 환호성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더욱 높여지고있다.》

유감스러운것은 미국이 조선인민 주주의인민공화국을 힘으로 압살

하려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공화국에 대한 침략행동으로 미쳐날뛰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조선의 력사적으로 새로운 승리의 한계지를 또다시 기록하게 할것이다.

스무스조선위원회 위원은 조선인민은 미제를 반대하는 싸움에서 승리한 첫 인민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김일성대원수의 령도밑에 영웅적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

본사기자

## 최후승리자는 누가 될것인가

지금 조미대결전이 매우 격렬하게 벌어지고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자는 과연 누가 될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미 나왔다.

지난해 3월 한 피피언론이 우리 공화국이 제3차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후 미군정에서 떠도는 분위기에 대해 보도한적이 있다. 그에 의하면 워싱턴내부에서는 《조선핵문제》해결에서 미국의 주도적역할에 대한 회의심과 패배주의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는것이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오바마를 비롯하여 행정부당국자들은 미국남조선공조를 취하며 우리의 인공위성발사에 뒤여 진행될 제3차 핵시험에 《강력한 응징》으로 대처해나간다고 요란하게 떠돌아다녔다. 공개성에서 그렇게 큰소리를 친 미국은 실제로 돌아앉아서는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몹시 전전긍긍하였다.

가소로운것은 남조선피해들이 상전이 걸로 허세를 부리며 쏟아놓은 그 말을 귀가 항아리만 하여 듣는 하 루강이지 범부서들은 모르는 격으로 《단호한 응징》을 떠들어댔었다. 그러나 남조선피해들도 백악관내부에서 만연되고있는 패배의 분위기를 감추고있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였다.

미행정부의 당국자들과 대조선문제전문가들은 《조선핵문제》해결을 놓고 미국은 이제 할수 있는것이 별로 없다. 지금은 너기가 좀 나서야 할 때이다라고 하면서 남조선피해들의 잔등을 계속 떠밀었다고 한다. 미국부성의 고위인물들은 남조선의 한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 《미국은 지금 지체되고 북조선에 손을 내밀수가 없다.》고 하면서 남조선이 나서서 북조선과의 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피피언론은 이런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행정원한도 없고 백악관의 골치거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미국회의원들은 논란의 개구리처럼 떠돌아다니면서 《대화이긴 압박이건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라느니, 《핵무장한 북조선의 위협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라느니 하며 떠들썩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미대결전에서 승리자의 위치에 우리가 서있고 패배자의 자리에 미국이 꿰어앉아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조미대결에서 승리자의 위치와 패배자의 자리는 오래 전부터 규정되어있다.

미국이 아무리 발악해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써도 절대로 이 위치를 뒤바꿀수 없다.

## 《상 승 장 군》들의 말로

미국은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여러 전쟁에서 악명을 떨친 미군장성들을 참가자로 전쟁을 승리적으로 계속할것처럼 호언장담

《불명예스럽게 제2차 세계대전시기 유럽에서 사단장으로 싸운바 있는 필리핀에 상륙하여 일본군을 격파하고 마닐라에 입성한것으로 하여 유명해진것이다.》

그는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조선인민군의 진격을 지지하지 않고 자기 사단주력의 전투보장을 위하여 스미스를 맹목적으로 오산견선에 진출시켰다.

미군복을 입은 저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인민군대가 달아날것이라고 콘솔리던 스미스에게는 도리어 인민군대와 조우하여 싸워달라고하였다.

민은 이에 대해 대아메리카 합중국 의 가장 큰 수치라고 하면서 대전에서 시범을 보여 신

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미국이 내세운 《상승장군》들의 비참한 말로가 그 결과에 대해 웅변으로 증명해주고있다.

《부텨장군》 스미스와 워커

미해병대 1사단장 스미스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학살과 파괴, 약탈을 전업으로 삼은 전쟁광신자였다.

미해병대 1사단은 미국의 《정예》부대들중에서도 손꼽히는 부대로 알려져있다. 18세기 중엽에 조직된 이 사단은 매해기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의 돌격대로, 《해병대의 꽃》

《대형》을 떨쳤다.

하지만 이 사단은 조선전쟁에 뛰어들어 조선북부의 장진호반까지 침입하였다가 우리 인민군대의 포위공격에 의하여 무리죽음을 당하였다.

연방을 폭파시킨 파쇄적이고 중상자와 시체를 한꺼번에 매장해버린 사단장 스미스는 얼마 안되는 패관들을 실은 배우에서 《그렇

듯 많은 부하의 시체를 버리고 지휘관이 떠나가는 일이란 175년간의 해병대력사에 없는 일》이라고 탄식하였다.

이로 하여 스미스에게는 《무덤장군》이라는 별명이 차례지게 되었다.

그와 함께 전쟁초기에 미8군사

《항복서》에 수표하고

미국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자리에 맥아더, 뒷지휘관이 순서대로 올라앉았다가 철권정치 후 그 자리를 이어받은것은 클라크였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때 이 팔리아주론 파쇼도이원한드군과 무솔리니친탁군의 항복을 받아들여 우물쭈물거리면서 조선에서도 다시한번 그러한 《공적》을 세우리라고 어리석게 꿈을 꾸었다.

그는 북조선의 도시들을 지도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떠벌이면서 닥치는데로 폭격하여 모조리 파괴하고 모조리 불태우

명관으로 《유엔군의 지상작전을 총지휘하여 일시적인 강점지역에서 무고한 조선인민을 수많은 학살한 한 위키는 중증크를 앞세우고 제2조선전부대의 포위공격과 지뢰전에 걸려 황천국이 되고

《눈물을 흘린 클라크》

그 모조리 죽이는 《교살작전》을 벌려왔다.

최후의 도막으로 《진공세》를 벌려 《유엔군》의 힘을 시위해버려 하였다.

하지만 그의 시도는 완전히 풍지박산났으며 조선정전협정에 수표하지 못한것이였다.

클라크를 비행장에서 맞이하던 때에 대하여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그 당당하던 기개로 위풍도 간곳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서는 두줄기의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본사기자

## 새 사회건설을 호소

인디아수상 나렌드라 모디가 15일 독립절에 즈음하여 헌연에서 전체 인민이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인디아는 앞으로 세계적

인 제작업종심지로 되어야 하며 2019년까지 깨끗하고 문명한 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위해 다같이 사색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향 의 집 회 와 시 위

미국 미주리주의 스톤 루이스 시외에서 10일 경찰의 살인행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벌어졌다.

9일 경찰이 아무런 죄도 없는 흑인에게 마구 총질을 하여 무참히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집회에는 수백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경찰서 건물앞에 모여 《경찰은 테러행위를 중지하라!》, 《경찰을 무장해제시키라!》 등의 구호가 쳐이르며 수포를 들고 불법무도한 경찰의 살인행위를 단죄하였다.

보트루일의 리스봉에서 9일 당국의 부당한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수많은 각계층 군중

이 참가하였다.

시위참가자들은 대규모은행들을 구제한다는 미명하에 근로자들의 임금을 계속 삭감하여 주민생활을 황폐시키고있는 당국의 그릇된 처사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일본의 히로시마현에서 최근 《집단지위권》행사를 용인한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1000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전쟁과 《집단지위권》을 강력히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의 참사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팔라암하는 나이스라핀군

## 이 라 크 공 습 에 깔 린 용 흥 한 속 심

지난 7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미군이 이라크에 선별적공습을 가하는것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날부터 미국방성은 무인기를 비롯한 전투기들을 동원하여 이라크북부지역에 대한 공습을 개시하였다.

이것은 2011년 오바마정권이 이라크에서 미군을 철수시킨 이후 처음으로 단행하고있는 공습이다.

현재 이라크의 북부지역은 《이슬람교국가》로 자처하는 무장집단이 차지하고있다. 국제사회에 《달 카다피》라 칭해졌으며 미 순니파반란군이라고 알려져있는 이 집단은 올해초부터 이라크북부의 주요도시들을 장악하고 점차 전파를 확대하여왔다. 지난 6월에 들어와 이라크북부의 여러 도시들을 장악하고 7월에는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있는 수리아의 동부지역을 손에 넣은 이 집단은 미군에 이라크북부의 쿠르드지역가까이에 있는 그리스도교마을 5곳을 포 점하고 수리아북부지역에 있는 한 군사기지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슬람교국가》의 군사적공세로 하여 현 이라크정권의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중동의 역평판계가 예상치 않게 변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국이 《이슬람교국가》를 차지하고있는 지역들에 대한 공습에 나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에 나선 리면에 어떤 용흥한 타산이 깔려있는가 하는것이다.

미국은 순니파로 구성된원썩단 후세인정권을 뒤집어엎고 시아파위주의 정권을 세워놓았다. 이로써 미국은 이라크경내에서 교과간 모순을 격화시켰다. 결국 현 이라크정권을 반대하는 순니파무장세력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슬람교국가》는 혼란된 환경속에서 급격히 성장하였고 전파를 확대할수 있었다.

자료에 의하면 이전 썩단 후세인정권에서 북부하던 군사인원들이 《이슬람교국가》에 적지 않게 가담하였다.

오바마정권과 미국회내에서는 이라크사태와 그 해결책을 둘러싸고 복잡한 논쟁이 벌어졌다. 미지상군을 다시 투입할지 45000명의 사상자와 수만명의 부상자를 낸 그 악몽의 지난날이 되풀이될수 있고 반대로 모르는척한 오바마정권이 팽고할만한 한 《유선》하게 줄어들수 있는것이다. 아웅다웅하던 끝에 찾은 출로가 결국 이라크정부군을 지휘한 미군사교관단을 파견하는것과 함께 공습을 벌이는데 《이슬람교국가》의 무력을 약화시키는것이였다.

미국이 이라크공습을 단행한것은 또한 이라크에 대한 지배권을 확고히 장악하는데 있다.

지금 이라크정권은 미국이 잠재적적수로 여기고있는 이란, 로씨야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강화에 힘을 넣고 있다.

그것은 이라크정권이 품고있던 미국에 대한 환상이 깨어져 나가고있기때문이다.

대표적실례로 미국과 맺은 전투기구매계약문제는, 미국은 맺었던 계약이 깨어져가고 있고 허물어지는 중동지배전략에 새로운 임금을 불어넣을 목적에 있어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목적은 중동에서 나날이 강화되고있는 극단적인 무장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있다.

미국이 감행한 이라크전과 《아랍의 봄》으로 하여 무법천지처럼 된 여러 중동나라들에서는 각이한 무장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활동하고있다. 때문에 미국은 발원점을 못하고있다. 언제, 어느 단계, 미국의 어느곳을 노리고 군사적공격을 단행할지 모르기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저들의 언론들을 발동하여 이란이 이라크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비밀리에 무인기를 띄워 정보활동을 벌이고있다느니, 대량의 군사물자들을 넘겨주고있다느니 하며 확증되지 않은 보도자료들을 세계에

배물리고있다. 이란은 이를 단호히 부인하고있다.

이라크가 다른 나라들의 도움으로 현 사태를 평정하는 경우 미국의 중동지배전략은 붕괴에 빠질수 있다. 미국은 이를 우려하면서 이란에 대한 비난 선전을 늘어놓는 한편 로씨야와 이란 등의 나라들과의 관계강화에 나선 이라크가 저들의 손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허물어지는 중동지배전략에 새로운 임금을 불어넣을 목적에 있어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목적은 중동에서 나날이 강화되고있는 극단적인 무장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있다.

미국이 감행한 이라크전과 《아랍의 봄》으로 하여 무법천지처럼 된 여러 중동나라들에서는 각이한 무장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활동하고있다. 때문에 미국은 발원점을 못하고있다. 언제, 어느 단계, 미국의 어느곳을 노리고 군사적공격을 단행할지 모르기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저들의 언론들을 발동하여 이란이 이라크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비밀리에 무인기를 띄워 정보활동을 벌이고있다느니, 대량의 군사물자들을 넘겨주고있다느니 하며 확증되지 않은 보도자료들을 세계에

배물리고있다. 이란은 이를 단호히 부인하고있다.

이라크가 다른 나라들의 도움으로 현 사태를 평정하는 경우 미국의 중동지배전략은 붕괴에 빠질수 있다. 미국은 이를 우려하면서 이란에 대한 비난 선전을 늘어놓는 한편 로씨야와 이란 등의 나라들과의 관계강화에 나선 이라크가 저들의 손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허물어지는 중동지배전략에 새로운 임금을 불어넣을 목적에 있어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단행한 목적은 중동에서 나날이 강화되고있는 극단적인 무장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있다.

미국이 감행한 이라크전과 《아랍의 봄》으로 하여 무법천지처럼 된 여러 중동나라들에서는 각이한 무장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활동하고있다. 때문에 미국은 발원점을 못하고있다. 언제, 어느 단계, 미국의 어느곳을 노리고 군사적공격을 단행할지 모르기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저들의 언론들을 발동하여 이란이 이라크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비밀리에 무인기를 띄워 정보활동을 벌이고있다느니, 대량의 군사물자들을 넘겨주고있다느니 하며 확증되지 않은 보도자료들을 세계에

본사기자